

응급처치

응급처치란?

-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, 뜻하지 않은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처치와 보호를 통해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
- 119에 연락하는 것부터 부상이나 질병을 의학적 처치 없이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도 포함

외상상처 발생 시 응급처치



① 세척

- 가벼운 상처의 경우 외부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흐르는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세척한다.



② 지혈

- 출혈이 멈출 수 있도록 깨끗한 거즈 혹은 천으로 직접압박 해준다.
최대 10분까지 지혈해주고, 10분 이상 지혈을 해도 출혈이 있다면 병원으로 이송한다.



③ 상처보호

- 출혈이 멈추었다면 외부감염과 출혈을 막기 위해 밴드 혹은 거즈로 상처를 보호해준다.

염좌 및 골절 발생 시 응급처치

R(Rest)

- 손상된 부위의 휴식
- 부상이 심한 경우 안전한 곳에서 잠시 안정

I(Ice)

- 부상 부위를 차가운 물이나 얼음팩으로 20분 간격으로 냉찜질
- 부상부위 염증, 부종감소효과

C(Compression)

- 부상 부위에 적절한 압력을 가해 부종감소+혈액순환 개선

E(Elevation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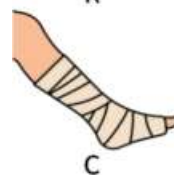
- 부상 부위를 높이 거상시켜 부종감소+혈액순환 개선



R



I



C



E

화상환자 응급처치

① 종류

- 1도 화상: 피부가 붉게 되었다가 가라앉고, 피부 표피가 살짝 벗겨짐
- 표재성 2도 화상: 피부 진피층 일부가 손상된 경우로
물집이 생기고 벗겨진 후 드러난 상처 면이 붉은 빛을 보임
- 심재성 2도 화상: 상처 바닥 면이 초기에는 흰빛이 많은 열은 분홍색을 보이다
이후 가피가 형성되며 진한 흰색/노란색 변함
- 3도 화상: 피부 아래 피하조직까지 손상된 경우로 심하면 인대와 뼈가 보이기도 함
피부이식이 필요한 정도로, 저온화상이나 감전사고인 경우 다

② 응급처치방법

- 뜨거운 물에 젖은 옷은 가위로 제거
- 차가운 물로 화상부위 충분히 식히기
- 화상부위 식힌 후 조이는 옷/장신구 제거
- 소주, 치약, 연고는 화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바르지 않기
- 깨끗한 천/붕대로 화상부위를 감싼 후 병원 방문하기

③ 유의사항

- 물집은 터트리지 않기
- 얼음으로 화상부위 식히지 않기
- 몸에 불이 붙었을 때 STOP, DROP, ROLL

출혈환자 응급처치

① 저혈량성 쇼크

- 불충분한 혈액순환으로 혈액이 조직으로 확산되지 못해 생리적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
- 신체에 혈액이 확산되지 못하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탄산가스가 축적되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음

② 증상

- 청색증, 창백증, 차고 축축한 피부
- 어지러움, 저혈압, 실신
- 호흡의 증가, 차고 축축한 피부

③ 응급처치

- 5분 이상 출혈 부위를 직접 압박해 지혈하고 심장보다 높게 들어올리기
- 담요로 보온을 유지하고 심장보다 높은 자세 유지하는 것이 중요
- 외부출혈이 없는 상태에서 쇼크 증상이 나타날 경우,
내부출혈의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기

④ 유의사항

- 상처를 손이나 깨끗하지 않은 헝겊으로 함부로 건드리지 않기
- 엉키거나 뭉친 핏덩이를 떼어내지 말기
- 흙/더러운 것이 묻은 경우 깨끗한 물로 상처 소독하기
- 반드시 소독된 거즈를 상처에 대고 드레싱하기

